

평창동계올림픽 G-88

김연아 “총을 거두자”... 유엔서 평화의 외침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보조 발인
도종환 장관 “전 세계 평화올림픽 방침”



김연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2010 밴쿠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7)가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외친다.

를 낼 예정이다. 이회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소개발언과 김연아의 보조발언에 이어 결의안 채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 대표단은 유엔 출입기자들과 현지 주요 언론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해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 전 세계적으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긴다.

올림픽 휴전결의안은 1993년 이후 올림픽이 열리는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선수, 임원들이 안전하게 동행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결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도종환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내외에 휴전결의안 지지를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은 전 세계에 평화올림픽의 방침을 찍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2003년 1월 이회택 이후 14년 10개월 만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우승이다.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이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생애 첫 ATP 투어 정상에 오른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밀라노(이탈리아) AP뉴시스

한국선수 14년10개월만에 정현, ATP 투어 정상 등극

넥스트젠 파이널서 첫 우승... “평정심 V 비결”

평정심을 유지한 덕분에 값진 열매를 수확했다. 한국 선수로는 14년 10개월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우승을 일군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54위)이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은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결승에서 세계랭킹 37위 안드레이 루블레프(20·러시아)를 3-1(3(5)-4 4-3(2) 4-2 4-2)로 제압해 우승을 차지했다. 정현이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그의 투어 대회 최고 성적은 올해 5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BMW 오픈 4강이었다.

정현은 시상식 후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감격해 하면서도 “좋은 경기를 펼친 루블레프에 격려를 보낸다”고 패자에 대한 예의도 갖췄다.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준 정현은 2세트에서 한층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흐름을 가져왔다. 분위기가 정현 쪽으로 흘러가자 루블레프는 라켓을 코트에 집어던지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 정현은 루블레프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3~4세트를 내리 때내 우승을 일궜다.

ATP 공식 홈페이지는 “정현이 5전 전승을 거두며 완벽한 우승을 일궜다”며 “루블레프는 ATP 투어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 정현은 투어 레벨에서 4강까지 오른 것이 전부였다. 정현은 피에라 밀라노 코트가 가득 찬 중앙감 속에서 루블레프보다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현은 “1세트를 내주고, 2세트에서도 초반에 브레이크를 당해 화가 많이 났다”며 “하지만 평정심을 가지고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우승 비결을 털어놨다.

올해 5월 자신의 투어 대회 최고 성적과 정적의 거두고,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는 처음으로 3회전 무대도 밟았던 정현은 시즌 마지막 대회를 기분 좋은 우승으로 마감하며 올 시즌을 끝냈다. 이번 대회는 21세 이하 선수들 중 세계랭킹 상위 8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올해 처음으로 치러졌다. 정현은 초대 챔피언에 오르면서 세계 테니스계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정현은 “생각보다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한 것 같다.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y@donga.com

이승훈, 평창 매스스타트 금 예약
팀 추월·매스스타트 우승 'ISU 월드컵 2관왕'
이승훈(29·대한항공)이 올 시즌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농구 (12월)
2017-2018 정관장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여자프로농구 (12월)
2017-2018 신한은행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아마추어 경기결과 (12월)
축구
2017 U리그 왕중왕전(전남 영광)
16강=건국대 3-2 승선대, 수원대 2-1 조선대, 동국대 3-1 삼지대, 고려대 1(PK 5-3) 1부경대, 광주대 0(PK 3-1) 인천대, 용인대 5-1 대구대, 단국대 1-0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주대 3-1 경희대